

# “생물·섬 생태계 보전 사회적 공감대 확장”

호남권생물자원관생물탐사단

전국 35명 신안 흑산도 일대 조사  
법정보호종 10종 등 383종 확인  
박진영 관장 “거점기관 역할 충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생물탐사단'에 참여한 전국의 시민과학자 35명이 최근 신안군 흑산도 일대에서 생물 다양성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국민 참여 조사를 확대해 생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신안군 흑산도 일대에서 생물 다양성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섬 생태계 보전 활동에 나섰다.

12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섬 연안 지역의 생물 다양성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8일 흑산도 일원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생생물탐사단 생물 다양성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생물탐사단은 섬·연안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생물 조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이다.

시민과학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현장 조사 과정을 경험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생물자원 조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조류, 곤충, 식물, 양서·파충류 등 4개 분류군에 관심을 가진 전국 시민과학자 35명이 참여했으며, 국제 환경 캠페인인 ‘세

계 철새의 날’을 계기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또한 현장 조사에는 박진영 관장도 직접 참여해 시민과학자들과 소통하며 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탐사 결과 흑산도 일대에서 총 383종의 생물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붉은배새매, 검은머리물떼새, 흑비둘기 등 총 10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섬 지역 생물상 변화 파악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영 관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섬 생태계를 탐사하며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체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생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섬 생태계를 수호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박종현 호남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



호남대학교는 12일 “박종현(사진) 건축학부 교수가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역의 도시 공간 현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시 설계 담론 형성 및 정책 제안,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도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MA (Master Architect)를 역임한 박 교수는 도시 설계와 건축 계획 분야에서 축적해온 연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도시 공간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지역 연계형 도시 설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현 교수는 “광주·전남은 역사·문화·자연 환경·산업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도시·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역 도시 공간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배재훈 전남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전남대학교는 12일 “배재훈(사진)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대한건축학회의 ‘2026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는 1969년 설립된 건축학술단체로, 약 3만2천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은 건축 분야의 학술 연구 성과와 기여도를 바탕으로 수여되며, 연구의 독창성, 학술적 기여도, 학문 발전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배 교수는 강구조를 기반으로 AI 기반 구조 융합, 탄소중립 건축구조 및 내재탄소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해체·재사용 기반 구조 시스템, AI 기반 구조기술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며 구조 안전성과 탄소 저감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박선욱기자



## 강기정 시장, 스승의 날 지역 유치원 교원 격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유치원 교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주최로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장 및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

외빈 소개, 황정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의 인사말, 강 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2026년 스승의 날 시상식에서는 우수 유치원장과 교사 12명에게 시장상이 수여됐다.

또한 교육감상 33명, 광주시의회의장상 20명, 연합회장상 72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변은진기자



## 광주시체육회, 5·18묘지 찾아 오월 영령 위로

광주시체육회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갑수 회장 등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전 회장은 방명록에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 국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광주 체육인들도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오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광주 체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민주묘역을 찾았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임직원들은 추모탑에서 단체참배를 한 뒤 묘비를 닦으며 민주 영령의 넋을 기렸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박희중기자



## 광주여대 간호학과, 어르신 건강관리 봉사활동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간호학과 봉사 동아리 로타레트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로타레트 봉사동아리는 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제4회 어버이날 행사’에서 ‘혈당 & 혈압 건강체크’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정상 수치와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전공과 연계한 실천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학과 3학년 신서영 학생은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송인자 지도교수는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예비 간호사로서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배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박선욱기자



## 담양 봉산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치킨 배달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지원대상자 40가구와 봉산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가정의 달 맞이 치킨 배달’ 사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이 어려운 가구와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교숯불갈비가 기탁한 후원금 1천만원 중 일부가 사용됐다.

/담양=정승균기자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대상자 가정과 봉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치킨과 음료 50세트를 각각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윤재현 공공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성경찰, 가로수에 ‘야광 반사지’ 부착

보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신원수 경찰서장과 웅치면장, 마을 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웅치면 대신리 일원 약 6km 구간 가로수·가드레일에 고투도 야광 반사지를 부착했다.

이번 활동은 읍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군도 등 가로등 미설치 구간의 가로수에 반사지를 설치해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사지에는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안전’ 문구도 삽입했다. 신원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보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해남 송지파출소·자율방범대, 범죄취약지 야간 순찰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소장 최복원)는 지난 11일 송지면 자율방범대와 함께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야간 합동 순찰을 펼쳤다.

이번 순찰은 이상동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 강화 활동 일환으로, 땅골 송지장 주변과 산정리 상권 일대를 집중점검하고 후미진 골목길과 주택가를 꼼꼼히 살피는 데 주력했다.

최영진 송지자율방범대 대장은 “생업에 바쁜 대원들이 순찰 활동에 적극 참여해줘 고맙다”



면서 “앞으로도 송지파출소와 협업체 정기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남=박필용기자

## 조선대, AI캠프 ‘다함께 독서교실’ 성료

조선대학교는 12일 “농림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AI+X 융합 AI캠프 다함께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영주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김윤아(썬아이 플랜 팀장)와 AI-SW학부 조운성 학생, 전자공학부 조현석 학생이 참여해 합평 해보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2시간씩 총 5차례 진행했다.

학생들은 매회 한 권의 도서를 함께 읽고 토



론한 뒤 책 속 이야기와 장면을 바탕으로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코딩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공학적 설계 과정을 수행했다.

/박선욱기자

### 부음

▲김공례씨 별세, 오주일(오성수산 대표)·금선(오성화물 대표)·병철(오성건설 대표)·신석·귀석(진도군 국비확보TF팀장)씨 모친상=발인 13일(수) 정오 여수시 여수장례식장 3층 5호실(061-688-4444).

▲신권희씨 별세, 신해군·연우·민경·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씨 장친상=발인 14일(목) 오후 2시 해남군 국제장례식장 본관 1호(061-536-4494)